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참빛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25일)부터 토요일(30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교육관에서 고난주간 기도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새벽 6시에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중 세례입교식과 찬양대의 칸타타가 있습니다.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가격은 11만원이고 사과 5박스, 사과즙 1박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을 맞아 감리교 농도 생협에서 유통관을 판매합니다. 오늘은 주문예약을 받고 다음 주일에 판매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신앙실천을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p>목 19:28~40 시 118:1~2, 19~29</p>
--

<p>요 12:20-26</p>

<p>오늘 식당 봉사 : 선교회장단 다음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이오복 박안수 이운석 원인해 문복순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이종배 고정림 홍순구 김한솔 윤수연 다음주설거지봉사 : 정현선 고정환 류정욱</p>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며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푸른 생기가 돌고 그 끝에 새로운 꽃망울이 맺히듯, 우리의 건조한 영혼에도 생기가 돌게 하시고 희망의 기운들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건물 높은 곳에 세우고 불을 밝힐 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성우 박유경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재환 김진선 김준호 곽혜자 김철수 유영남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박병구 배근수 김금순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송임희 송형철
 양상철 박재란 양재성 임미심 이봉옥 이주율 이준림 이증자 김창경
 이한림 김명희 이호원 장아름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허준호 홍선희 LK

감사헌금:

김상근 최선미 김용태 박정숙 민병배 문현미 박권동 박병규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 정현모 권정연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숙 양준하 양인하 장근성 박희순 추현영 한상의
 무명

생일감사헌금:

오송경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박성희	박재란	김미순
김재흥	최경미	최경미	임정자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박정숙
정경례	진정숙	문금석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정선희
권미숙	박미영	방극숙	교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유영남
이형숙	윤수진	김재광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안홍숙
정영선	서정순	정영현	홍춘영
박혜경	조향미	정현선	최영혜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2013 참빛 찬양대

소프라노

고숙이 문복순 박경선 박경원 박성실 박옥식 배삼순 안정숙 우순덕
유경순 이정은 정경례 정복순 정영선 조순덕 진정숙 박혜경

메 조

김민화 김희우

알 토

권미숙 김진경 문금석 박미영 박영희 백혜숙 송임희 유영남 이봉옥
이소순 이재문 이현순 임창선 조병주

지휘자 : 안홍숙 반주자 : 김수진

대 장 : 박성실 총 무 : 김민화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마지막 당부를 잊지 마십시오. 정성스런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사십시오. 수시로 밀려드는 유혹들을 뿌리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잊은 채 나의 일에만 빠져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늘 마음을 살피며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힘써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형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 관장 : 박혜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고난주간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김태환 선생 오자영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왕영순 김금순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예수의 죽음

... 나는 끝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 뛰어내리지 못했다. 뛰어내리기 전에, 이미 내 몸은 새로운 출발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꿈쩍 못하고, 가뭇에 말라죽은 개구리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는 내 몸으로부터 황금빛 수레바퀴가 굴러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바퀴가 구르는 곳마다 아우성 소리는 잦아들고 평화가 깃들었다. 전쟁은 끝나고, 거기 전쟁터에 꽃이 피어났다. 가뭇던 곳에 단비가 내리고, 쓸쓸하던 곳에 다정한 애인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대지가 술한 수목과 들짐승을 품에 안고 뽀얀 젖줄기를 아낌없이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뽀죽한 고깔을 쓰고 피리를 불며 수풀 속에서 나왔다. 옷통을 벗은 건장한 사내가 맨 뒤에 서서 커다란 북을 울리고 있었다. 나팔, 팽과리, 장구... 그들은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노랫소리에 맞추어, 오래 전에 죽었던 고목의 마른 가지가 움직이고 거기서 과란 잎이 돌아났다. 말랐던 샘물이 터지고 이름 모를 새들이 잔가지 사이를 오르내리며 노래했다.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나무와 인간들 사이를 비단 자락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들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것은 온몸의 피를 신선하게 만들어주었다. 물구나무를 선 여자들이 하늘을 향해 두 발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위로 술한 별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우물가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난 아이는 날개를 펼치며 우물가를 맴돌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는 피 문은 바퀴를 보았다. 그것은 개구리처럼 말라붙은 내 몸에서 굴러나온 바로 그 황금 수레바퀴였다.

그러나 사실 내 몸은 이미 십자가와 하나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 수레바퀴가 나온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십자가였다.

내 몸이 십자가와 하나되어 이미 출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자 나는 걸잡을 수 없는 외로움에 빠졌다. 그것은 가시관이나 쇠뿔이 가져다주는 아픔은 비교도 안 될 만한, 무서운 고통을 내게 덮어씌웠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때, 누군가 내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왔다.

“견디는 거다. 아들이. 참고 견디는 거다.”

우주의 큰마음, 내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몸을 뒤틀면서 항의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버릴 시간입니다. 어서 떠나시오!”

그의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렇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제발 부탁이다. 견디시오.”

“견디라고요? 이 사막에다 지독한 외로움을 선물하면서, 이 미칠 지경에 처한 몸으로 견디라고요?”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그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해결의 길이 아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는 날 너는 그 뿌리가 곧 네 뿌리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아들이, 견디라. 고통을 이기는 길은 견디서 배겨내는 길뿐이다.”

나는 솟아오르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무엇 때문에 견디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배겨내라는 겁니까?”

...

침묵을 지키고 있는 내게 그가 다시 속삭였다.

“전쟁이 일어나 술렁이는 때 발을 가는 것이 그 전쟁을 극복하는 길이다.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역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아들이, 나는 이제 너를 떠나야 한다. 부탁한다. 견디시오. 그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견디서 배겨내시오. 끝까지 남는 자가 수레바퀴의 참 주인이다.”

...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다시 현실은 사라져가고, 나는 잿빛 공간 속으로 살며시 스며드는 내 영혼을 보았다. 십자가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그것은 흰 비둘기처럼 날아가는 것이었다.